

PA-051

전북 평야지 흑미 2모작 재배 시 생육 및 수량성

이덕렬^{1*}, 강영호¹, 조대호¹, 최창학¹, 권석주¹¹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서론]

전북 평야지는 맥류와 채소후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2모작 작부체계가 정착되어 있으며, 2모작은 일모작에 비해 이앙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이 적합하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 흑미계통을 개발하였으며, 2모작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19년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익산)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계통은 전북7호와 전북11호 2품종이었고 조생 흑찰을 대비품종으로 사용하였다. 이앙은 6월 15일부터 10일 간격으로 7월 15일까지 10일모를 90주/3.3㎡로 기계이앙하였다. 질소, 인산, 칼리 시비량은 10a당 9-4.5-5.7kg이었으며, 질소와 칼리는 기비와 수비를 각각 70%, 30%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인산은 전량기비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출수 후 40일간의 등숙기 평균기온 적산온도를 보면 전북 7호는 7월 5일 이앙까지 안전한 등숙적산온도(840℃)를 확보하였으며, 7월 15일 이앙에서는 834.8℃로 낮아 재배 안전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전북11호는 7월 15일 이앙 시 출수는 9월 1일이었고 적산온도는 868.3℃로 높아 안전하게 등숙이 가능하였다. 포장도복은 전북7호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북11호는 6월 15일 등 3처리에서 약 3정도 발생하였다. 주당 수수는 전북7호와 전북11호 모두 이앙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였고 등숙비율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였다. 천립중은 전북7호의 경우 7월 5일 이앙까지는 무거워지는 경향이으나 이후엔 가벼워졌으며, 전북11호는 이앙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벼워지는 경향이였다. 10a당 현미수량을 보면 전북7호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 이앙까지 유의성이 없었으며, 전북11호는 7월 15일 이앙까지 유의성이 없었다. 전북7호와 전북11호는 6월 15일에 이앙하는 것보다 7월 5일 이앙하는 것이 현미 색택이 좋아 품질이 우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배 안전성, 쌀수량 및 품질을 고려한 적정 이앙 시기는 전북 7호가 6월 25일 ~ 7월 5일, 전북11호는 7월 5일 ~ 7월 15일이었다.

*주저자: Tel. 063-290-6071, E-mail. ldr0128@korea.kr